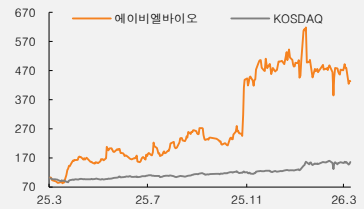


Not Rated

목표주가	—
현재주가(26/3/25)	172,300원
상승여력	—

영업이익(26F,십억원)	—
Consensus 영업이익(26F,십억원)	—
EPS 성장률(26F,%)	—
MKT EPS 성장률(26F,%)	—
P/E(26F,x)	—
MKT P/E(26F,x)	—
KOSDAQ	1,159.55
시가총액(십억원)	9,647
발행주식수(백만주)	56
유동주식비율(%)	75.5
외국인 보유비중(%)	12.0
벤투(12M) 일간수익률	1.00
52주 최저가(원)	33,000
52주 최고가(원)	245,500

(%)	1M	6M	12M
절대주가	-8.1	84.7	384.0
상대주가	-7.6	35.8	196.9



[제약/바이오]

김승민
sm.kim.a@miraeasset.com

298380 · 제약/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BBB 셔틀 상업화와 4월 담도암 2차 주목

BBB 셔틀 적용한 의약품의 첫번째 FDA 허가

디날리(DNLI US)의 tividinofusp alfa가 헌터 증후군(MPS II) 치료제로 FDA 가속 승인을 획득했다(브랜드명: AVLAYAH). TfR 기반 BBB 투과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FDA 승인 의약품이다. 기존 표준치료 idursulfase(Elaprase)는 BBB를 통과하지 못해 신경학적 증상에 효과가 없었으며, 아블라야는 이 한계를 극복한 최초의 BBB 통과 ERT다. Phase 1/2(n=47)에서 CSF HS 90.9% 감소, NFL 정상화 등을 확인했으며, CSF HS를 대리지표로 한 가속승인이다.

IGF1R 기반 BBB 셔틀의 경쟁력(vs. TfR 기반 셔틀)

에이비엘바이오의 Grabody-B는 TfR 대신 IGF1R을 타겟하여 구조적으로 차별화된 다. 1) 뇌 발현도: IGF1R 32.7% vs. TfR 5.6%, 2) 노화 안정성: IGF1R은 노화 무관, TfR은 감소, 3) 안전성: TfR 셔틀의 빈혈·혈액독성 리스크 없음, IGF1R 시그널링 비간섭, 4) 투과 경로: CME·FEME·Caveolar 다중 경로 활용 및 Rab5 비연동으로 리소좀 분해 회피. 이를 기반으로 사노피('22)·GSK('25.4)·Lilly('25.11)에 기술수출, 총 마일스톤 9조원 상회한다.

디날리 BBB 셔틀 허가에 따른 Grabody-B 관심 상승 전망

이번 허가로 1) BBB 셔틀의 상업적 가치 실증에 따른 Grabody-B 재평가 가능성, 2) CSF 바이오마커 기반 가속승인 규제 경로 선례화, 3) 아블라야 라벨에 빈혈·막성 신경증 모니터링이 명시되며 IGF1R 기반 Grabody-B의 차세대 BBB 셔틀 포지셔닝이 강화될 전망이다.

4월, 컴패스의 담도암 2차 데이터 발표 주목

파트너 컴패스(CMPX US)의 tovecimig(ABL001) Ph.2/3 COMPANION-002(2L BTC, n=168) 데이터가 4월 공개 예정이다. ORR은 이미 통계적 유의성 달성(17.1% vs. 5.3%, p=0.031)했다. 2L BTC는 기존 mOS 6.2개월에 불과한 고 unmet need 영역으로, 크로스오버 설계상 PFS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가능성이 높으며 OS는 RPSFT 보정 분석이 규제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 결과 시 에이비엘바이오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되며, 4월은 BBB 셔틀과 이중항체 파이프라인 가치를 동시에 입증할 시점이다.

결산기 (12월)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십억원)	5	65	64	33	79
영업이익 (십억원)	-52	0	-3	-59	-39
영업이익률 (%)	-1,040.0	0.0	-4.7	-178.8	-49.4
순이익 (십억원)	-44	4	-2	-55	-37
EPS (원)	-927	81	-52	-1,088	-671
ROE (%)	-59.4	6.1	-3.4	-45.5	-22.5
P/E (배)	-23.8	283.9	-472.9	-27.5	-298.3
P/B (배)	18.6	15.7	15.8	9.6	69.9
배당수익률 (%)	0.0	0.0	0.0	0.0	0.0

주: K-IFRS 개별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에이비엘바이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BBB 셔를 적용한 의약품의 첫번째 FDA 허가

디날리(Denali Therapeutics, DNLI US)의 tvidenofusp alfa(DNL310)가 헌터 증후군(MPS II, 뮤코다당증 제2형) 치료제로 FDA의 가속승인(Accelerated Approval)을 획득했다. 허가 브랜드명은 아블라야(AVLAYAH)다. 이번 허가는 transferrin receptor(TfR) 기반 혈뇌장벽(Blood Brain Barrier, BBB) 투과 기술을 적용한 의약품으로서는 최초의 FDA 승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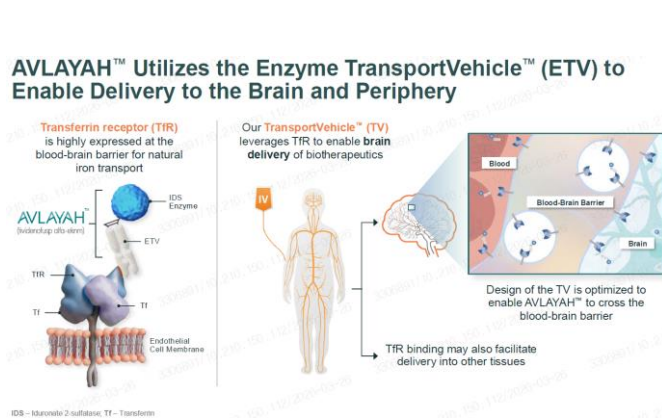
아블라야는 iduronate-2-sulfatase(IDS) 효소에 Denali의 독자 BBB 투과 플랫폼인 TransportVehicle™(TV)을 융합한 재조합 단백질이다. TV는 TfR에 결합하여 수용체 매개 트랜스사이토시스(receptor-mediated transcytosis)를 통해 BBB를 통과하고, CNS까지 IDS 효소를 전달하는 구조다. 기존 표준치료(Standard of Care)인 idursulfase(Elaprase, 다케다)는 BBB를 통과하지 못해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치료 효과가 부재했으며, 아블라야는 이 한계를 극복한 최초의 BBB 통과 효소대체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이 되었다.

허가 근거가 된 Phase 1/2 open-label 임상(n=47, 소아)에서는 CSF heparan sulfate(HS)가 24주 시점 평균 90.9% 감소했으며, 전 참여자에서 정상 또는 정상 근접 수준에 도달했다. 이 효과는 week 153까지 지속(-89.3%)되었다. 소변 HS도 baseline 대비 84.6% 감소(24주)했으며, week 129까지 유지(-80.1%)되었다.

혈청 NFL(neurofilament light chain, 신경 손상 마커)은 대다수 환자에서 week 104까지 정상화되었고, 임상적으로도 적응행동, 인지기능, 청력, 간 용적 등에서 개선 또는 안정화가 관찰되었다. 주요 이상반응은 주입 관련 반응, 빈혈, 구토, 발열 등으로 기존 ERT와 유사한 범주에 해당하며, 대부분 경증~중등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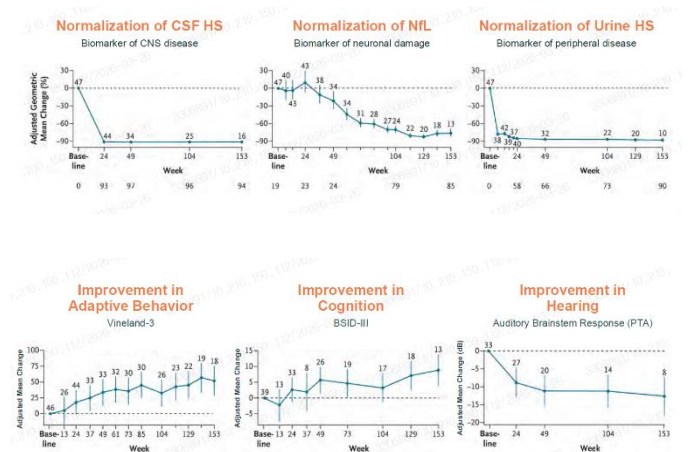
본 허가는 CSF HS를 대리지표(surrogate endpoint)로 활용한 가속승인이며, 정식승인 전환을 위한 Phase 2/3 COMPASS 확증 임상(tvidenofusp alfa vs. idursulfase, 이중맹검, 무작위 배정)이 진행 중이다. COMPASS Cohort A(신경병증형, 2~6세)의 등록은 2025년 12월 완료되었으며, 결과는 2027년에 확인될 예정이다.

그림 1. 아블라야는 TfR 기반 BBB 셔를 적용한 융합단백질



자료: Denali Therapeutic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아블라야 임상1/2 상 바이오마커(위) / 임상지표(아래)



자료: Denali Therapeutic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GF1R 기반 BBB 셔들의 경쟁력(vs. TfR 기반 셔들)

에이비엘바이오의 BBB 셔들 Grabody-B는 디날리의 TV 플랫폼이 타겟하는 TfR이 아닌 IGF1R(insulin-like growth factor 1 receptor)을 타겟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차별화된다. 주요 차별화 포인트는 수용체의 뇌 발현도, 노화에 따른 발현 안정성, 안전성 프로파일, BBB 투과 경로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수용체의 뇌 발현도다. IGF1R은 타 조직 대비 뇌에서의 발현 비중이 32.7%로 높은 반면, TfR은 5.6%에 불과하다. IGF1R의 높은 뇌 특이적 발현은 셔들의 효율적 전달과 말초 장기에서의 off-target 리스크 저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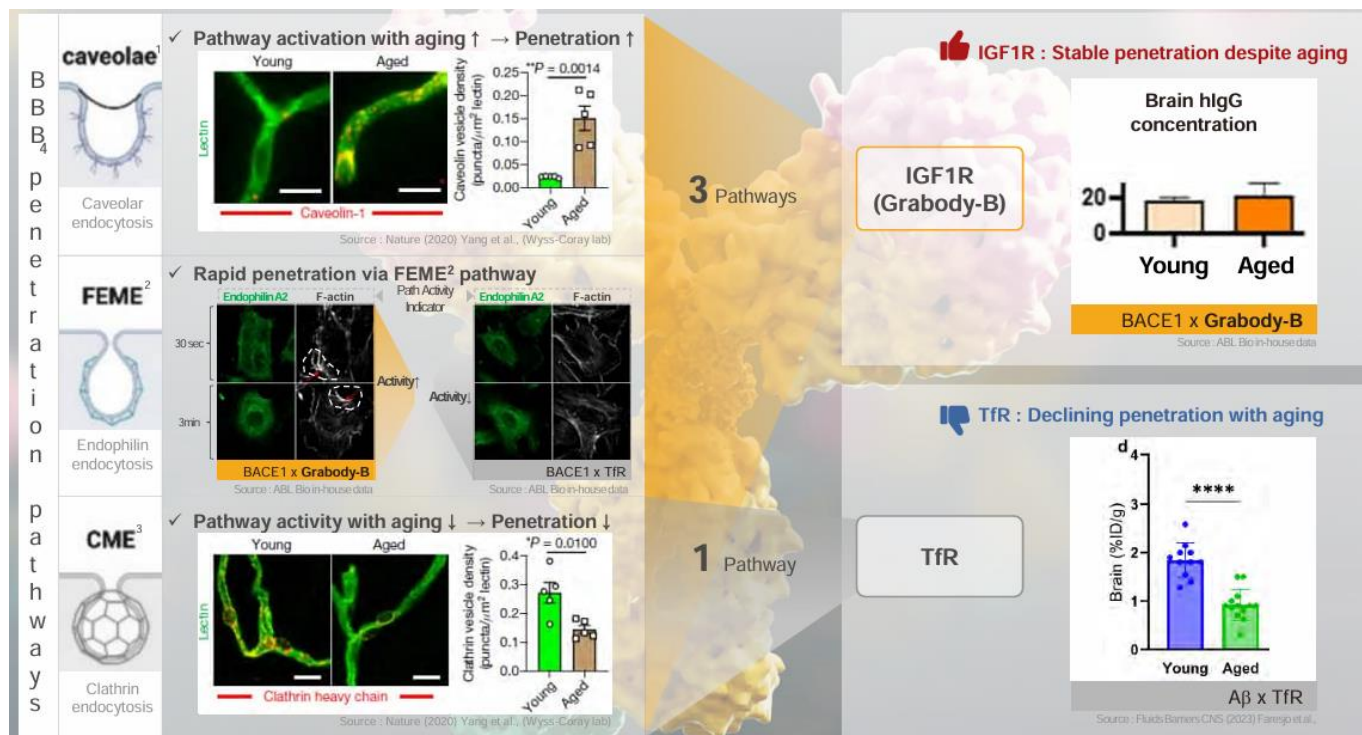
둘째, 노화에 따른 발현 안정성이다. IGF1R은 노화에 따른 발현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 TfR은 노화에 따라 발현율이 감소하여 투과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츠하이머·파킨슨 등 고령 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CNS 질환에서 IGF1R 기반 셔들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포지셔닝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다.

셋째, 안전성 프로파일이다. TfR 기반 셔들은 혈액 내 철 대사에 관여하는 TfR의 특성상 빈혈 발생 및 혈액 독성 리스크가 존재한다. 반면 Grabody-B는 IGF1R을 타겟하기에 이러한 리스크로부터 구조적으로 자유롭다. 또한 IGF1R을 타겟함에도 IGF1R 시그널링에 간섭하지 않는 설계로, 인슐린 관련 부작용 보고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넷째, BBB 투과 경로의 다양성이다. Grabody-B는 CME(clathrin-mediated endocytosis), FEME(Fast Endophilin Mediated Endocytosis), Caveolar 등 다중 경로를 통해 BBB를 투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FEME 경로는 30초 이내에 세포 내 이동이 시작되는 초고속 내재화 기전이다. TfR 기반 셔들이 CME 단일 경로에 의존하는 것과 비교하면, 투과 효율과 속도 양면에서 IGF1R 기반 셔들이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Grabody-B는 뇌 투과에 불리한 것으로 알려진 Rab5와 동일위치발현(Colocalization)하지 않는 반면, TfR 기반 셔들은 Rab5와 연동된다. Rab5는 초기 엔도솜(early endosome) 마커로, 이 경로로 진입한 물질은 리소솜 분해 경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뇌 실질(parenchyma)까지의 전달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Grabody-B가 Rab5 비의존적 경로를 활용한다는 점은 리소솜 분해를 회피하여 뇌 내 유효 약물 농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이점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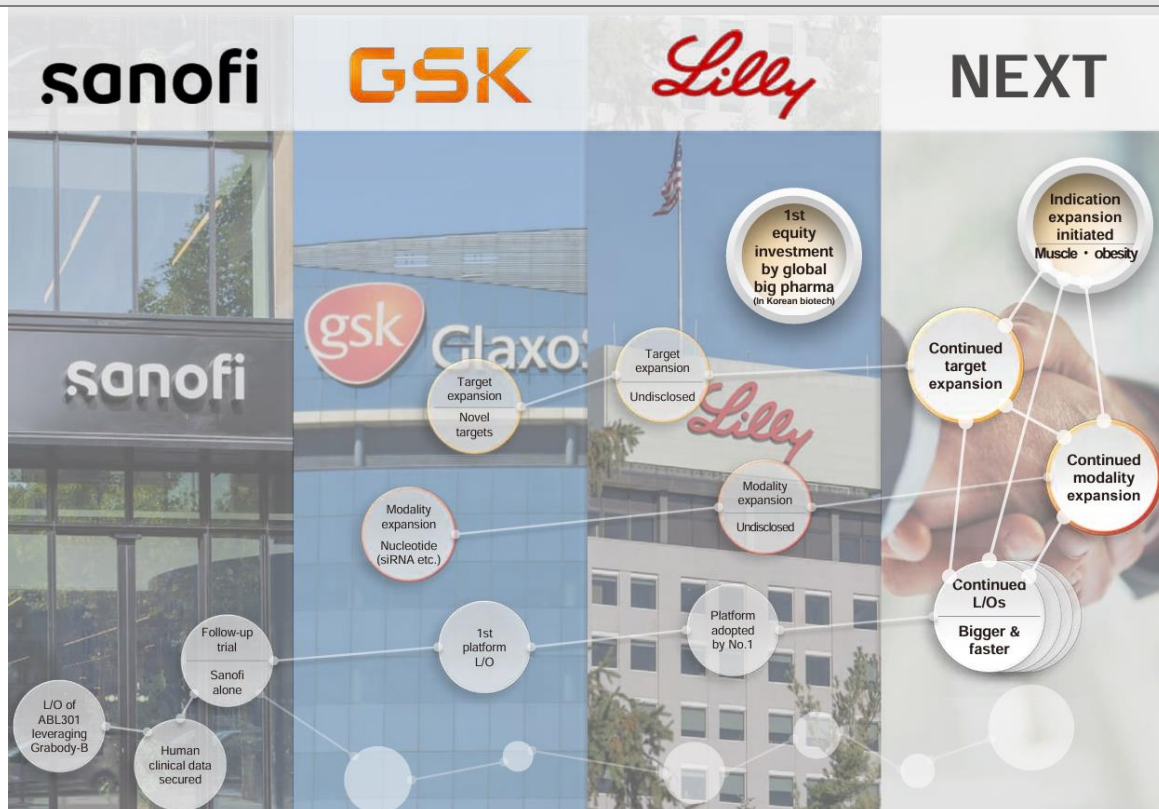
이러한 IGF1R 기반 Grabody-B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에이비엘바이오는 2022년 사노피에 α -synuclein 타겟 ABL301(파킨슨) 기술수출, 2025년 4월 GSK, 2025년 11월 Eli Lilly에 Grabody-B 플랫폼 기술수출이라는 성과를 기록했다. Grabody-B 관련 기술이전의 전체 계약 규모는 현재까지 9조원을 상회한다. 또한 Grabody-B의 적용 모달리티를 기존 항체에서 RNA(siRNA, ASO) 전달 영역으로 확장 중이며, 최근 아이오니스(Ionis Pharmaceuticals)와의 전임상 공동연구에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의 골격근 및 심근 전달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그림 3. BBB 투과에 다중경로를 활용하는 IGF1R 기반 Grabody-B



자료: 에이비엘바이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Grabody-B 파트너사



자료: 에이비엘바이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디날리 BBB 셔틀 허가에 따른 Grabody-B 관심 상승 전망

이번 디날리의 아블라야 FDA 허가가 에이비엘바이오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가치의 재평가 가능성이다. 디날리를 통해 BBB 셔틀 의약품의 상업적 가치가 실증됨에 따라 Grabody-B 플랫폼 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빅파마 3사 합산 총 마일스톤은 9조원을 상회하며, 이번 허가를 계기로 BBB 셔틀 플랫폼에 대한 빅파마의 추가 투자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규제 경로의 선례화다. BBB 셔틀 기반 의약품이 CSF 바이오마커(HS, NfL 등)를 대리지표로 활용하여 FDA 가속승인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확립되었다. 향후 Grabody-B 기반 프로그램들이 미중족 의료 수요가 높은 CNS 질환에서 CSF 내 타겟 단백질 변화 등을 대리지표로 활용해 가속승인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셋째, 차세대 BBB 셔틀로서의 포지셔닝 강화다. Grabody-B는 IGF1R 기반으로 TfR 대비 차별화된 안전성 및 뇌 특이성 프로파일을 보유하고 있어, TfR 기반 플랫폼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Next-Generation)이자 Best-in-Class BBB 셔틀로서의 포지셔닝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아블라야의 FDA 허가 라벨에는 빈혈 위험으로 인해 치료 시작 전 baseline 및 치료 개시 3개월 후, 이후 정기적으로 헤모글로빈 수치를 모니터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막성 신병증(membranous nephropathy) 위험으로 인해 신기능 및 소변 단백질 수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요구된다. 빈혈과 신장독성이 레이블에 명시된 것이다. 이는 TfR 기반 셔틀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TfR은 혈액 내 철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용체이기에 TfR 결합 자체가 적혈구 성숙 및 철 흡수에 영향을 미쳐 빈혈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고령 환자 대상 CNS 질환에서 TfR 발현이 노화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IGF1R 발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 또한 동사의 차별화 포인트로 부각될 수 있다.

그림 5. 아블라야 라벨에 표시된 빈혈과 막성신병증 위험

Anemia (Low Red Blood Cell Count) occurred during AVLAYAH treatment and may require periodic laboratory tests for hemoglobin. Contact your healthcare provider if you experience any symptoms (e.g., fatigue, pale skin) suggestive of anemia.

Membranous Nephropathy (Kidney disorder that affects the filters that help remove wastes and fluids from the kidney) occurred in an AVLAYAH-treated patient. Your doctor will monitor your kidney function during treatment.

자료: FDA, 미래셋증권 리서치센터

4월, 컴패스의 담도암 2차 데이터 발표 주목

한편, 4월에는 에이비엘바이오의 또 다른 핵심 카탈리스트가 예정되어 있다. 파트너 컴패스 (Compass Therapeutics, CMPX US)를 통해 DLL4xVEGF 이중항체 tovecimig(ABL001)의 2차 담도암(Biliary Tract Cancer, BTC) Phase 2/3 COMPANION-002 임상 데이터(mOS, mPFS 등)가 공개될 예정이다.

COMPANION-002는 2차 치료(2L) BTC 환자 168명을 2:1로 무작위 배정 (tovecimig+paclitaxel 111명 vs. paclitaxel 단독 57명)한 시험이다. 1차 평가변수인 ORR은 2025년 4월 이미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했으며(17.1% vs. 5.3%, p=0.031), PD율에서도 16.2% vs. 42.1%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차 평가변수인 PFS/OS 분석을 위한 80% OS 이벤트 임계값은 당초 예상보다 늦은 1Q26에 도달했는데, 이는 tovecimig군의 생존이 모델링 대비 양호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컴패스 CEO는 이번 데이터가 transformational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2H26 BLA 제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2L BTC는 치료 옵션이 극히 제한적인 미충족의료수요가 높은 영역이다. 기존 BTC 2차 치료제는 FOLFOX(folinic acid, fluorouracil, and oxaliplatin)로 ABC-06임상에서 FOLFOX mPFS 4개월, mOS 6.2개월, ORR 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tovecimig+paclitaxel의 이전 임상2상 단일군 결과(n=24, 2L+3L)는 mPFS 9.4개월, mOS 미도달(12개월 OS율 53%, 95% CI:11.0-NE)로, 압도적인 효능 신호를 보여주었다.

4월 발표 예정인 무작위 대조군(RCT) 2/3상 데이터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mPFS 개선과 mOS의 방향성으로 보인다. 이번 임상은 크로스오버로 설계되었기에 대조군의 질병이 진행될 경우 Tovecimig+Paclitaxel 투약을 받는다. 따라서 PFS는 크로스오버의 영향을 받지 않고 Ph.2에서의 신호가 강했던 만큼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OS의 경우 크로스오버 설계 특성상 ITT 기준 통계적 유의성 달성은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ITT OS의 통계적 유의성보다는 치료군의 mOS(당사 기준 11개월 수준) 및 대조군 대비 양성 OS + 트렌드(HR(1.0)와 크로스오버를 보정(RPSFT)한 OS 결과(통계적 유의성 달성)가 규제 패키지의 실질적 근거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RPSFT 보정 분석을 통해 OS benefit이 확인되어 FDA 승인의 보조 근거로 활용된 선례는 lenvatinib(갑상선암), regorafenib(위장관암) 등이 있다.

PFS의 통계적 유의성(HR<0.70) + OS의 긍정적인 트렌드 또는 크로스오버 보정 OS 분석(RPSFT)의 조합이 2L BTC의 높은 unmet need를 감안한 FDA 허가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COMPANION-002 긍정적인 임상 결과 및 컴패스 테라퓨틱의 기업가치 상승은 tovecimig rNPV 상승에 따른 에이비엘바이오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4월은 Grabody-B BBB 셔틀 플랫폼의 가치 부각과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의 임상적 가치를 동시에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전망이다.

그림 6. COMPANION-002 임상2/3상 1차 평가변수 O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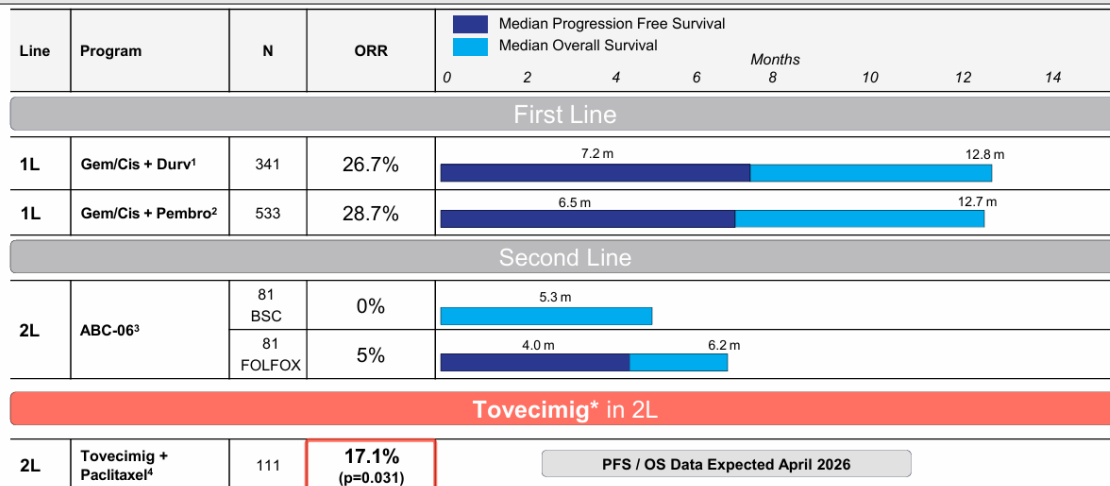
COMPANION-002 Study (BTC)		Tovecimag + Paclitaxel	Paclitaxel
Intent-to-Treat Population		n=111	n=57
Overall Response Rate (CR+PR)		19 (17.1%)	3 (5.3%)
Two-Sided p-value		p=0.031	
Best Overall Response (RECIST v1.1 by blinded independent radiology review)	Complete Response (CR)	1 (0.9%)	0 (0.0%)
	Partial Response (PR)	18 (16.2%)	3 (5.3%)
	Stable Disease (SD)	49 (44.1%)	19 (33.3%)
	Non-CR / Non-PD*	9 (8.1%)	2 (3.5%)
	Progressive Disease (PD)	18 (16.2%)	24 (42.1%)
	Not Evaluable (NE)**	16 (14.4%)	9 (15.8%)

*Non-CR / Non-PD: patients enrolled based on local radiology scan results, but displayed no clearly definable target lesions as determined by independent central radiology.

** Not Evaluable: patients who did not receive a Week-8 scan; these patients are not evaluable for response only, but will be evaluable for PFS/OS analy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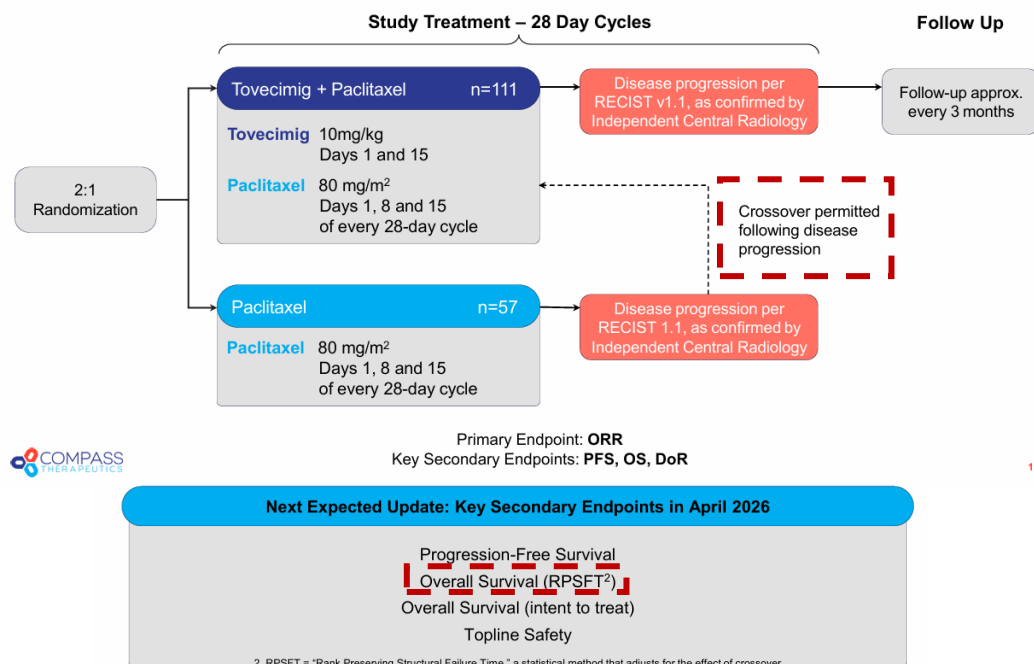
자료: Compas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BTC 치료 SoC 레짐 mPFS 및 mOS



자료: Compas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COMPANION-002 임상2/3상 디자인. 크로스오버 허용, 2차 평가 지표 PFS, OS



자료: Compas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에이비엘바이오 (298380)

예상 포괄손익계산서 (요약)

(십억원)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65	64	33	79
매출원가	0	0	0	0
매출총이익	65	64	33	79
판매비와관리비	65	67	92	118
조정영업이익	0	-3	-59	-39
영업이익	0	-3	-59	-39
비영업손익	4	1	4	2
금융손익	0	1	2	2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0	0	0	0
세전계속사업손익	4	-2	-55	-37
계속사업법인세비용	0	0	0	0
계속사업이익	4	-2	-55	-37
중단사업이익	0	0	0	0
당기순이익	4	-2	-55	-37
지배주주	4	-2	-55	-37
비지배주주	0	0	0	0
총포괄이익	4	-3	-56	-37
지배주주	4	-3	-56	-37
비지배주주	0	0	0	0
EBITDA	2	0	-57	-36
FCF	72	-97	-78	-60
EBITDA 마진율 (%)	3.1	0.0	-172.7	-45.6
영업이익률 (%)	0.0	-4.7	-178.8	-49.4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	6.2	-3.1	-166.7	-46.8

예상 재무상태표 (요약)

(십억원)	2022	2023	2024	2025
유동자산	83	75	144	134
현금 및 현금성자산	23	28	56	7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0	0	0	59
재고자산	0	0	0	0
기타유동자산	60	47	88	5
비유동자산	60	86	89	148
관계기업투자등	24	4	4	46
유형자산	4	74	83	99
무형자산	3	3	2	3
자산총계	143	161	233	282
유동부채	71	42	64	12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6	9	14	8
단기금융부채	1	1	44	55
기타유동부채	64	32	6	60
비유동부채	2	44	1	1
장기금융부채	1	43	0	0
기타비유동부채	1	1	1	1
부채총계	73	86	65	124
지배주주지분	70	75	168	158
자본금	24	24	27	28
자본잉여금	361	364	511	545
이익잉여금	-338	-342	-397	-434
비지배주주지분	0	0	0	0
자본총계	70	75	168	158

예상 현금흐름표 (요약)

(십억원)	2022	2023	2024	2025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3	-26	-69	-40
당기순이익	4	-2	-55	-37
비현금수익비용가감	8	9	4	6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	2	2	3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기타	6	7	2	3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및부채의변동	60	-32	-21	-1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0	0	0	-59
재고자산 감소(증가)	0	0	0	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1	1	4	-4
법인세납부	0	-2	0	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3	-13	-47	20
유형자산처분(취득)	-1	-71	-9	-20
무형자산감소(증가)	0	0	0	-1
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12	3	-72	81
기타투자활동	-60	55	34	-4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	43	145	33
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1	42	0	12
자본의 증가(감소)	13	3	150	34
배당금의 지급	0	0	0	0
기타재무활동	-9	-2	-5	-13
현금의 증가	2	4	28	14
기초현금	22	23	28	56
기말현금	23	28	56	70

자료: 에이비엘바이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주당가치 및 valuation (요약)

	2022	2023	2024	2025
P/E (x)	283.9	-472.9	-27.5	-298.3
P/CF (x)	91.7	169.1	-29.9	-358.4
P/B (x)	15.7	15.8	9.6	69.9
EV/EBITDA (x)	440.5	-2,557.9	-23.8	-310.1
EPS (원)	81	-52	-1,088	-671
CFPS (원)	251	145	-1,001	-558
BPS (원)	1,467	1,561	3,105	2,862
DPS (원)	0	0	0	0
배당성향 (%)	0.0	0.0	0.0	0.0
배당수익률 (%)	0.0	0.0	0.0	0.0
매출액증가율 (%)	1,125.3	-2.7	-47.4	137.6
EBITDA증가율 (%)	흑전	적전	적지	적지
조정영업이익증가율 (%)	흑전	적전	적지	적지
EPS증가율 (%)	흑전	적전	적지	적지
매출채권 회전율 (회)	-	-	-	2.7
재고자산 회전율 (회)	-	-	-	-
매입채무 회전율 (회)	-	-	-	-
ROA (%)	3.7	-1.6	-28.0	-14.2
ROE (%)	6.1	-3.4	-45.5	-22.5
ROIC (%)	3.4	-9.7	-79.7	-45.9
부채비율 (%)	104.0	115.6	38.8	78.6
유동비율 (%)	115.9	178.2	225.6	108.2
순차입금/자기자본 (%)	-47.0	10.7	-55.7	-9.2
조정영업이익/금융비용 (x)	1.7	-45.6	-1,666.8	-39.3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